

“서귀포 관광극장 철거보다 보존이 더 우세”

시민·전문가 “공공건물로서의 보존 가치 필요” 한목소리
연구진 “정면 파사드·복측 석벽 원형 보전… 안전성 보장”

역사적·건축적 가치를 지닌 서귀포 관광극장과 관련, 공공건물로서의 보존 가치의 필요성에 대한 주민 의견이 강하게 제기됐다. 철거나 복원이 아닌 기존에 남아 있는 건축물 자체를 보전하고 해당 공간도 고유성·정체성을 반영해 유지·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서귀포시는 지난 19일 시청 별관 문화강좌실에서 관광극장 활용 방안 마련을 위한 주민의견 수렴 과정인 시민 공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응역을 수행한 제주연구원은 현존 정면 파사드(건축물 정면 외벽)와 복측 석벽을 최대한 원형 보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안전성을 보장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향후 추진 과제로 지역의 주요 근대건축자산으로서의 가치 극대화에 연구의 초점을 맞췄다.

이성용 선임연구원은 ‘관광극장 활용 방안 연구’를 통해 “1안으로 현존 정면 파사드의 전면 보전을 우선과제로 검토하고, 2안으로는 구조적 문제 발생시 복원을 통해 과거 건축물 모습을 재현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내부 공간의 경우, 슬라브 등을 포함한 파사드 뒷면

공간 활용도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재구성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9m에 달하는 현무암 돌쌓기 방식의 회소성을 지닌 석축 벽체 보강과 관련해선 “복측·동측 일부의 보수·보강을 통한 안전성 확보가 시급하고, 동측·남측 일부는 과거 활용성과 이중섭미술관과의 연계성을 고려해야 한다”며 “건축물 보존의 다음 단계로 건축기회를 통한 설계공모 추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를 통한 지역 주민과 방문객에게 유용한 근대건축자산 재탄생을 기대했다.

이에 대한 주민의 반대 의견은 잇따랐다. 철거와 복원이 아닌 최대한 원형 보전에 초점을 맞추고 현대적 기술로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 최소한의 보수·보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A씨는 “관광극장 그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있는데, 철거·복원된다면 근대건축 요소인 디자인과 건축양식은 물론 건물이 지닌 역사성마저도 사라진다”며 “관광극장의 얼굴인 파사드를 새롭게 복원하는 것 보다는 원형 그대로 두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무너진 건축자재를 전시하고 해당 공간을 고미술품을

포함한 경매 기능을 담은 공간 활용도 제기했다.

B씨는 “지난 4월, 관광극장 주변 4개동 거주민 520명과 방문객 96명에 대한 관광극장 인지도 및 활용방안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보수·보강 활용이 과반(50~56%)으로 선호했고, 철거 후 새로운 활용은 40% 이상(41~49%)을 보였다는 결과를 제시하며 철거와 보전에 대한 의견이 팽팽하다고 연구진은 주장하고 있지만 실상은 철거보다 보전이 10~14%가량 우세하다”고 지적했다.

C씨는 “기존 250평 규모였던 관광극장 공간이 지난해 9월 서귀포시의 강제 철거 과정에서 100평가

량으로 면적이 줄었다”며 “화장실, 주차장 등 필수 시설을 넣다보면 70평 규모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제대로 된 건물 활용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도 기대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참석자들은 향후 이뤄질 실시설계용역에 따른 정확한 예산 책정과 확보 문제를 비롯해 신임 시장의 입장을 들을 수 있는 추가 시민 간담회 자리를 요구했다.

시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제안된 지역 주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최종 반영하고, 추진협의회에서 권고한 내용을 토대로 오는 9월 기획설계를 발주할 예정이다.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지난 19일 서귀포시청 별관 문화강좌실에서 열린 관광극장 활용방안 마련을 위한 주민의견 수렴 과정인 시민 공개 간담회. 백금탁기자



지난해 진행된 지역문화프로젝트 ‘함다리’.

함덕32 제공

정착주민·원주민 잇는 징검다리 역할



<3> 문화예술연구소 함덕32(상)

문학·음악·연극 넘나드는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관광문화지도 제작으로
주민간 점점·교류 확대

지난 2018년 문을 연 문화예술연구소 함덕32는 문학, 음악, 연극, 환경 등 활동을 통해 정착주민과 원주민 사이를 잇는 징검다리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제주시 조천읍 함덕로 32에 자리한 함덕32는 문화예술연구소를 중심으로 도서출판과 서점, 레지던스를 한 건물에 품은 복합예술공간이다. 섬, 바다의 문화예술을 연구하고 실천하는 장소이자 마을을 찾은 정착주민과 오래 살아온 원주민이 자연스럽게 마주치고 어울리는 열린 공간을 지향한다.

함덕32는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 학술세미나, 연구 및 발간 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문학과 음악, 연극을 넘나드는 다양한 활동으로 정착주민과 원주민이 만나는 접점을 넓혀 왔다.

2020년 ‘함덕 4색(色)을 찾아서’

를 시작으로 심야책방, 서모사모(서우봉을 사모하는 사람들 모여라), 주민 참여형 음악 공연 ‘함다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와 함께 마을제사(포제) 자료를 모아 자료집으로 펴내고 제주 토박이부터 정착주민까지 주민 16명의 삶의 이야기를 책으로 출판하는 등 지역의 삶과 이야기를 기록하는 작업도 이어가고 있다.

특히 올해 제주특별자치도가 추진하는 ‘정착주민 지역공동체 조성사업’에 선정돼 ‘함덕리4구 관광문화지도 제작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이 사업은 제주로 이주한 정착주민과 마을에 오래 살아온 원주민을 절반씩 한 팀으로 묶어 함덕리 4구의 오래된 가게와 맛집, 동네 곳곳의 이야기가 담긴 명소를 함께 찾아 문화지도로 엮어내는 프로젝트다.

서로 다른 배경을 지닌 주민들이 마을을 함께 걷고 기록하는 과정에서 낯설을 익숙함으로 바뀌게도록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데 초점을 맞췄다.

배진섭 대표는 “제주로 내려오는 사람은 꾸준히 늘고 있지만 여전히 정착주민과 원주민이 어우러지는 접점이 부족하다”며 “문화예술이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편안하게 만나고 소통하는 매개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사업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오소범기자 sobom@ihalla.com

<제작 지원=제주특별자치도청>

서귀포시 재활용도움센터 의류매각사업 ‘연착륙’

84개소서 7월까지 3만5479kg 수거… 매각액 2062만원
재활용 확대에 세입 증대까지… 자원순환 정책 성과

서귀포시가 올해 첫 시행한 재활용도움센터를 통한 의류 수집 및 매각사업이 ‘연착륙’하고 있다.

20일 시에 따르면 올해 재활용도움센터 84개소에서의 의류 수집량·매각액은 7월 말 기준, 3만5479kg·2062만원(kg당 평균단가 620원)으로 자원 재활용 확대와 안정적인 세입원을 발굴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시는 재활용도움센터 의류수집사업과는 별도로 클린하우스에 설치한 서귀포형 의류수거함 445개에 배출된 의류를 민간 대행업체 5곳을 통해 수거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지난해 860만원, 올해 현재 1240만원의 사용료를 징수하는 등 지난 2년간 2100만원의 세입

을 거두고 있다.

이처럼 시는 올해 재활용도움센터를 통한 2062만원과 클린하우스 대행사업 추진에 의한 1240만원 등 3302만원의 세입을 올리고 있다.

시 관계자는 “하반기 첫 달인 7월에는 의류 4965kg을 수거했고, 매각대금은 190만6000원에 이른 다”며 “앞으로도 버려지는 자원의 가치를 높이고 깨끗한 서귀포시를 만들기 위해 자원순환 정책을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백금탁기자

지자체·교육청 도서관 맞손
내달 6일 동녘도서관서 축제

지자체 도서관과 교육청 도서관이 협력해 책 축제를 개최한다. 동녘도서관과 조천읍도서관이 오는 9월 6일 동녘도서관 일원에서 펼치는 ‘2026 동(동)동(동) 도서관’이란 이름의 독서문화축제다.

이날 응급의학과 전문의인 남궁인 작가(오후 1시), 방송인 이금희(오후 4시) 초청 강연과 함께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팝업북 만들기, 타로 책처방 등 체험 프로그램이 이어진다. 진선희기자 sunny@ihalla.com

JM 그룹 제이엠신용정보

빌려주고 못받은돈, 외상대금 등을 돌려받는 일은 제이엠에 맡겨주세요!!

‘한국씨티은행’ 자회사인 ‘씨티크레딧서비스’의 새이름



- 업계 최상 신용조치, 부동산조회 서비스
- 경력이 풍부한 추심직원의 신속한 회수
- 전국 40개 지점망을 연계한 최고의 회수율
- 2022년 신용정보 소비자 만족부문 대상 수상

대상채권

상사채권 : 물품대금, 공사대금, 용역대금, 외상대금, 투자금 등
민사채권 : 판결문, 공정증서 등 받고 미해결된 개인간의 대여금
금융채권 : 금융기관 여신 및 카드대금 등
채권매입상담 : 금융채권 매도 상담(매입제휴처 연계)



제이엠신용정보 제주지사

무료상담 ☎ 064)702-0500
* 직원모집 : 영업전문직, 추심전문직을 상시 모집합니다.

신용정보 소비자 만족 부문
2022년 대한민국 명품 브랜드 大賞
KOREA PRESTIGE BRAND AWARDS 2022